DBpia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습관 및 시험불안 비교
사이버교육센터의 수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A Comparison of Study Habits and Test Anxiety Between Gifted and Non-gifted in Middle-School Children: Math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Gifted at Cyber Education Center and Non-gifted As Subjects

저자 (Authors) 문정화, 김선희

출처 (Source) 영재교육연구 20(3), 2010.12, 831-846(16 page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3), 2010.12, 831-846(1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영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95264

APA Style 문정화, 김선희 (2010).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습관 및 시험불안 비교. 영재교육연구, 20(3), 831-846

이용정보 (Accessed) 서강대학교
163.***.1.208
2022/02/14 17: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영재교육연구 제 20 권 제 3 호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10. Vol 20. No 3, pp. 831~846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습관 및 시험불안 비교:
사이버교육센터의 수·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문 정 화 김 선 희
재능대학 재능대학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수·과학 영재와 일반 중학생의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에서의 차이 및 학습습관과 시험불안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KAIST 사이버과학영재교육센터 수강생 중 중학교 1~3학년 영재 183명(남 127명, 여 56명),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1~3학년 254명(남 128명, 여 126명)이다. 연구결과, 영재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학습습관이 더 우수하여, 학습과정에서 주의집중을 잘하고 학습 방법이나 요령이 더 능률적이며, 예습이나 복습을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불안의 경우 영재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더 낮게 측정되어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염려나 걱정 등을 덜 하고, 시험 상황에서 초조와 긴장과 같은 신체적 반응이 덜 나타났다. 또한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은 전체집단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여 학습습관이 우수할수록 시험불안이 낮은 경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집단에서 시험불안과 학습습관의 하위변인인 학습기술적용행동 및 자율학습행동 간에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주제어: 영재, 학습습관, 시험불안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풍토에서 학생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 기관 입학을 위해서도 시험을 봐야하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 등급과 반이 정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험성적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한

교신저자: 문정화(54321m@hanmail.net)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학벌 및 성적에 따라 편견과 불평등한 대우가 더 많고,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과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한상철 외, 2003). 박광관(1997)은 많은 시험 횟수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가시켜 정신건강의 훼손을 낳는다고 보고하였고, 김문주(1991) 역시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험불안도가 같은 연령의 독일, 인도, 네덜란드, 헝가리 학생들보다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Wine(1971)은 시험불안이 낮은 학생이 교사에게 더 집중을 잘하고, 침착하고, 조용히 공부하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반면,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은 공부와 무관하거나 공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시험불안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습관이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구병두, 1989; 김기석, 1968; 김억환, 1992; 김완석, 2000)을 바탕으로, 영재들은 일반아보다 학업성취가 높기 때문에 학습습관이 양호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기존의 영재선발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선발된 학생까지 포함된 사이버 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과학영재들 역시 일반아보다 학습습관이 양호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험불안과 학업성취 사이에는 부적상관 관계를 보이는 연구결과들(김은숙, 1990; 박찬원 외, 1999; 박영희, 1997; Tobias, 1980)이 많다. 영재집단이 학업성취는 높지만, 영재들의 완벽주의 성향이나 주위사람들의 영재들에 대한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험불안이 높을 수도 있다. 또한 시험불안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최진승 외, 1991). 이에 영재집단, 특별히 사이버 상에서 업로드 된 과제를 자발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사이버 센터의 영재들과 일반학생들 사이의 시험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습관 및 시험불안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영재 학생들과 일반학생들 사이에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의 학습습관에 차이가 있는가?

문제 2.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의 시험불안에 차이가 있는가?

문제 3.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의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습습관

Munn(1946)은 학습이란 어떤 활동, 훈련, 관찰과 같은 일정한 경험에 의하여 행동이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많든 적든 간에 영속적이고 진보적으로 변용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Hilgard(1966)는 학습이란 어떤 장면에 직면한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행동이 변용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 습관이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점차 내면화되어 어떤 장면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언제나 비슷한 형태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습습관이란 여러 학습활동 장면에서 학습자가 특정한 행동을 선호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그에게 내면화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관된 행동 반응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변창진, 1987).

학습습관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학습 부진아와 과진아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Robyak, 1977). 이어서 Wrenn(1941)이 최초로 학습습관검사를 제작했고, Brown과 Holtzman(1955)이 부진아를 진단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습관검사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기석이 처음으로 학습습관검사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개선하여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습관을 형성시켜주는 것이었다. 김기석(1968)은 학습습관을 학습하는 동기·태도·기술·습관·환경을 포괄하는 의미로 개념화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동기·목적의식·의지를 포함하는 동기요인, 학습에 관한 기술과 방법을 의미하는 기술요인, 능력·환경·성격과 관련된 기타요인으로 나누었다. 또한 학습습관과 학업성취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학습습관과 학업성적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억환 외(1992)는 학습습관은 학습활동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고정되어 의식하지 않아도 언제나 같은 형태로 반응하게 되는 학습태도를 의미하고, 하위요인으로 기술요인, 여가요인, 적응성, 목표지향성, 학구적 규범 수용성, 과제지향성, 학습관심도, 자율학습태도, 예습시간에 대한 태도변화, 학습태도 등이 있다고 개념화하였다.

Brown과 Holtzman(1967)은 학습습관을 행동요소와 태도요소로 구성하였다. 행동요소란 학교와 가정 등의 여러 학습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학습습관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고, 태도요소는 교사, 학교, 학습과제 등과 같은 여러 요소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경향성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박경숙과 이혜선(1976)은 학습습관을 학습할 때 취하는 일관된 행동양식(mode of behavior)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김기석(1968)의 연구를 토대로 학습습관이 지능 다음으로 학업성적을 예언하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보고 학습습관 검사를 개발하였다.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태도·학습습관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태도가 주로 인지적·감정적 요소를 측정하는 반면 학습습관은 행동적 요소를 측정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학습습관의 하위 영역을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했다. 주의집중행동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주의집중을 잘 하는지 또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는 산만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학습기술적용행동은 학습에 대한 방법 또는 요령이 능률적인지 또는 비능률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학습행동은 자율학습 또는 예습, 복습에 대한 습관이 능동적인지 아니면 수동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듯 학습습관은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들을 하위요소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경숙과 이혜선(1976)의 정의와 하위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학습습관과 관련하여 학습습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구병두(1989)가 국내에서 발표된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관한 석, 박사 논문 163편을 수집하여 학습습관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메타 분석한 결과, 학습습관은 지능 다음으로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김억환 외(1992)에 의하면 학습습관 변인이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김완석(200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습관이 지능과 함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학습습관이 지능과 다소 상관은 있으나 지능과의 관련성을 제외하고도 학습습관 독자적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학습습관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Brown & Holtzman(1955)은 학습습관과 학업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Bloom(1976)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와 학습태도와의 상관은 .20～.50으로 분포되어 있고, 초등학교 5～6학년에서 학업성취와 학습태도의 형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인성에 따른 학습방법을 알아본 연구(허정원, 2006)에서 과학영재는 일반학생에 비해 집중력이 더 높으며 학습전략이 뛰어나고 학습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능력이 높았으며 학습자아개념이 더 높고 학습환경 지수 역시 더 높게 나타났다.

2. 시험불안(Test Anxiety)

불안의 특수한 형태인 시험불안은 시험상황, 즉 개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평가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 반응과 생리 변화를 말한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다양한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임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위기의식을 제공함으로써 대처 능력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Greist & Jefferson, 1998). 그러나 불안이 지나치게 되면 정서의 각성수준이 높아져서 수행능률이 떨어지고(이용승, 2000), 불안이라는 역동적 기제가 발동할 경우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Horney, 1991).

Mandler와 Sarason(1952)은 시험불안을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 실패했을 때 갖게 되는 죄의식, 부모의 꾸중으로 인해 갖게 되는 적대감 등이 쌓여서 평가 상황에서 본능처럼 나타나는 일종의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은 시험불안이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낮은 학생보다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 차이는 시험상황이 위협적일 때 즉, 성적이 본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될 때 더욱 컸다고 보고하였다(임지향 외, 1998, 재인용).

Sarason 외(1960)는 각종 평가 장면에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갖게 되는 불안을 시험불안이라고 정의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을 받거나 대답을 할 때 걱정하는 수업관련 불안과 시험장면 내에서 시험을 치려고 할 때 걱정하는 시험장면 관련 불안으로 시험불안을 구분하였다.

Wine(1971)은 시험불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사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불안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의력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시험불안이 높은 사람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자신의 주의력을 과제수행과 관계없는 걱정이나 자기비판과 같은 부적절절한 인지행동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과제수행에 필요한 가용 단서를 더 적게 사용함으로써 과제수행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박경애(1997)는 시험불안을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시험공부에 지장을 받거나 시험을 칠 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일반적인 불안과 마찬가지로 시험불안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시험불안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거나 등교 거부 및 신체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최진승 외, 1991). 즉, 시험불안은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취, 학업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Spielberger(1972)는 불안이 긴장의 결과 나타나는 인지·정서·행동의 연속반응과 관계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누었다. 상태불안(state anxiety)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긴장·걱정·두려움을 느끼고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이 항진되어 야기되는 일시적인 불안상태이다. 따라서 개인이 위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상태불안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특성불안(trait anxiety)이란 불안을 일으키는 경향에 대하여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외적인 위협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개인의 일생에 걸쳐 비교적 일관된 양상을 보인다.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 이론에 따르면 시험불안은 개인이 시험을 어떻게 평가하며, 시험상황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때 개인이 외부의 사태를 지각할 때에는 외적·내적인 자극에 의존한다. 예컨대, 시험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감정적인 반응과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결과의 중요성, 시험을 통해 얻은 이전 경험, 그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이번 시험에서 기대하고 있는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등이 개인이 시험상황을 지각하는 데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평가를 받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시험불안은 특성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성불안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시험상황에서의 상태불안의 정도가 더 심해지며 이 결과 시험결과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Liebert와 Morris(1967)가 시험불안을 인지요소인 '걱정'과 정서요인인 '정서'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 연구가 시험불안의 구체적인 연구에 토대가 되었다. Liebert와 Morris는 이 두 요인이 시험상황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다.

인지요소인 걱정(W: worry)이란 성취에 대한 관심, 실패의 결과, 부정적인 자기 평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능력 등을 말한다. 자신이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고 항상 걱정을 지나치게 하며 남들이 자신에 비해서 얼마나 시험을 잘 치를까에 대한 걱정과 시험결과에 대한 걱정을 하며 자신이 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고 느끼는 면들이 포함된다. 즉, 걱정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총명한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실패 결과를 더 민감하게 지각한다.

정서요소인 정서(E: emotionality)란 시험상황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항진된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긴장과 초조와 같은 불쾌한 기분을 의미한다. 너무 긴장되어 기억력이 감소되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소화 장애, 지나친 땀 흘림, 극심한 불안상태 등의 신체적 반응들이 포함된다.

걱정요인은 학생들의 기대수준, 시험상황의 중요성, 자아관련 정도와 같은 영속적인 단서에 의해 야기되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되는 반면, 정서요인은 교실의 자극상황, 교사의 감독행동,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등 일시적이고 비평가적인 단서에 의해 유발되고 지속된다. 이 두 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걱정(W)은 시험이 예측되는 상황이나 시험상황에서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정서(E)는 항상 실제 시험상황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걱정(W)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Spielberger(1980)는 이 두 요인을 기본으로 걱정(W)과 정서(E)를 나타내는 두 개의 하위 점수와 총점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인 Test Anxiety Inventory(TAI)를 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문주(1991)가 이 TAI를 기초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여 TAI-K(Test Anxiety Inventory-Korea)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문주(1991)의 TAI-K를 사용하였다.

시험불안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시험불안이 학업성취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Tobias(1980)는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서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면서 시험불안이 낮은 학업성취의 밀접한 관련 변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고, 박찬원 외(1999)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험불안과 학업성취도 간의 부적상관을 보고하는 등 많은 연구들이 시험불안과 학업 수행과의 사이에 부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김은숙, 1990; 박영희, 1997).

시험불안은 학년에 따라 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Sarason 외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1960)는 4년간의 연구를 통해 학년에 따라 시험불안의 정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조수철(1991)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인지적인 기능 발달로 인하여 시험상황에서 자신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3. 학습습관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은 공부시간 이용, 학습방법 선정, 노트정리 및 시험 치는 요령 등이 시험불안이 낮은 학생보다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Hodapp & Henneberger, 1983; Culler & Holahan, 1980; Tolman & Jansen, 1984). 이는 시험불안이 시험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학습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수철 외, 2001).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학습태도와 시험불안을 영재집단, 특히 사이버 상에서 자발적으로 과제를 찾아 수행하는 사이버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KAIST 사이버과학영재교육센터에 선발되어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1~3학년 학생 192명과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1~3학년 273명이 참여했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437(영재집단 남 127명, 여 56명, 총183명; 일반집단 남 128명, 여 126명, 총 254명)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영재집단의 평균연령은 14.73세이고, 일반집단의 평균연령은 14.39세이다.

KAIST 사이버과학영재교육센터의 수강생은 기존에 영재선발과정을 거쳐 영재교육을 받았거나 수·과학 학업성취가 우수하여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다.

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의 학습습관 및 시험불안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습관 척도와 시험불안 척도를 이용하여 두 집단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집단의 경우, 학생들이 설문에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학급의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설문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각 학급에서 실시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영재집단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설문 작성 방법을 설명한 후 메일을 통해 받았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했다. 영재성의 유무에 따른 학습습관, 시험불안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고,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3. 측정도구

가. 학습습관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대한 태도와 학습습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신뢰도 계수 확인 절차를 거쳐 개발한 학습습관 검사지(박경숙, 이혜선, 1976)를 윤영화(2002)가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마다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집중행동은 학습과정에서 주의 집중을 잘하는지 또는 산만한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학습기술적용행동은 학습에 대한 방법 또는 요령이 능률적인지 또는 비능률적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며, 자율학습행동은 자율학습, 예습, 복습에 대한 습관이 능동적인가 혹은 수동적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리커트 식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이 도구가 개발될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하위 요인별 .82～.83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는 .94이다. 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요인별 .74～.89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는 .94이다.

나. 시험불안

시험불안 척도는 Spielberger 외(1980)가 고안한 TAI(Test Anxiety Inventory) 척도를 번안한 김문주(1991)의 TAI-K 중·고생용을 사용하였으며,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커트 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시험불안 중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염려나 걱정 등에 해당하는 인지요인(worry)을 측정하는 15개 문항과, 시험 상황에서 초조나 긴장과 같은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정서요인(emotionality) 15개 문항, 그리고 일반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6이다.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학습습관의 집단 간 차이

학습습관은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의 세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변인에서 영재성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영재성 유무에 따른 학습습관의 세 가지 하위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척도별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의 학습습관에서의 차이

	영재집단(N=183)	일반집단(N=254)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학습습관			
주의집중행동	4.11(.50)	3.31(.60)	14.637***
학습기술적용행동	3.89(.60)	3.08(.69)	12.782***
자율학습행동	3.60(.54)	2.91(.55)	13.189***

***p<.001

학습습관의 세 가지 하위변인에 대하여 영재집단과 일반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재집단은 일반집단보다 학습과정에서 주의집중을 더 잘 하고, 학습에 대한 방법이나 요령이 더 능률적이며, 자율학습 또는 예습, 복습 등을 더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험불안의 집단 간 차이

시험불안은 인지요인(걱정), 정서요인(불안), 일반요인의 세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변인에서 영재성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영재성 유무에 따른 시험불안의 세 가지 하위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척도별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의 시험불안에서의 차이

	영재집단(N=183)	일반집단(N=254)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시험불안			
인지요인	2.31(.82)	2.62(.78)	−4.041***
정서요인	2.18(.79)	2.41(.78)	−2.990**
일반요인	2.61(1.02)	2.91(.97)	−3.188**

**p<.01, ***p<.001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시험불안의 세 가지 하위변인에 대하여 영재집단과 일반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지요인, 정서요인, 일반요인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재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성취에 대한 관심이나 실패에 대한 가능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걱정, 과제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생각 등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염려나 걱정을 덜 한다. 또 시험상황을 예측하거나 실제 시험상황에서 땀이 난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등 시험상황에 대한 긴장, 초조와 같은 신체적 반응, 일반적인 불안요인 역시 영재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덜 나타났다.

3. 학습습관과 시험불안 간의 관계

가. 전체집단

학습습관의 하위요인과 시험불안의 하위요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각 변수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습관 중 주의집중행동과 관련해서 시험불안의 정서요인은 r=−.278, 인지요인은 r=−.286, 일반요인은 r=−.260의 부적상관을 보여 주의집중행동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기술적용행동과 관련하여 정서요인은 r=−.209, 인지요인은 r=−.253, 일반요인은 r=−.187의 부적상관을 보여 학습기술적용행동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율학습행동 역시 정서요인은 r=−.198, 인지요인은 r=−.267, 일반요인은 r=−.205의 부적상관을 보여 자율학습행동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표 3> 전체집단에서 학습습관과 시험불안 간의 상관관계(N=437)

		학습습관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
시험불안	정서요인	−.278**	−.209**	−.198**
	인지요인	−.286**	−.253**	−.267**
	일반요인	−.260**	−.187**	−.205**

** p<.01

나. 영재집단과 일반집단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이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에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을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각 변수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영재집단에서는 학습습관의 세 하위요인 즉,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 모두 시험불안의 세 하위요인인 정서요인, 인지요인, 일반요인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일반집단에서는 학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습습관의 세 하위요인 중에서 주의집중행동이 시험불안의 세 하위요인인 정서요인, 인지요인, 일반요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습기술적용행동과 자율학습행동은 시험불안의 어느 하위요소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영재집단에서는 주의집중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시험불안이 낮았으며, 학습에 대한 방법이나 요령이 더 능률적인 학생일수록 시험불안이 낮았으며, 예습, 복습 등 학습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학생일수록 시험불안이 낮았다. 그러나 일반집단에서는 주의집중을 잘하는 학생이 시험불안이 낮은 것은 영재집단과 같은 결과이지만, 학습기술적용행동이나 자율학습행동에 있어서는 시험불안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에서 학습습관과 시험불안 간의 상관관계(*N*=437)

		학습습관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
영재집단(N=183)				
시험불안	정서요인	−.341**	−.321**	−.270**
	인지요인	−.356**	−.388**	−.378**
	일반요인	−.331**	−.305**	−.242**
일반집단(*N*=254)				
시험불안	정서요인	−.184**	−.057	−.057
	인지요인	−.137*	−.049	−.067
	일반요인	−.143*	−.011	−.079

*p<.05,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 영재집단과 일반집단 간에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의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습관은 영재집단과 일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영재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학습과정에서 주의집중을 더 잘 하고, 자율학습 또는 예습·복습에 대한 습관이 더 능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재들의 학습습관은 일반적으로 과제의 주의를 기울이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학습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학습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사이버교육센터의 수·과학영재들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이버 상에 업로드 된 과제를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이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습습관의 하위요인들인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이 더 높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영재집단은 KAIST 사이버과학영재교육센터에 다니는 중학생으로, 선발과정에서 그 모집대상이 대상이 (1) 영재교육(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수(예정)인 학생, (2) 과학, 수학 교과 성적 우수학생, 또는 해당분야에 잠재력과 열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 과학·수학 담당 교사 혹은 영재교육원 지도교사의 추천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영재집단을 표집 하였으므로 이들의 학업성취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습습관이 학업성취에 주요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많은 선행 연구들(Robyak, 1977; Wrenn, 1941; Brown, 1965; 김기석, 196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김한선(2000)은 지능과 학습습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지능 변수를 제외하고도 학습습관이 학업성취에 독자적으로 고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둘째, 시험불안은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영재집단은 시험 실패에 대한 가능성, 타인과의 비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낮은 자신감, 과제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생각 등과 같이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측면에서의 염려나 걱정이 일반집단보다 더 낮게 측정되었다. 정서요인(정서, emotionality) 역시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영재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시험상황을 예측하거나 실제 시험상황에서 긴장·초조와 같은 신체 반응들이 덜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이는 배미란 외(2002)는 5요인 인성 모형에 기초한 과학영재들의 성격 연구에서 영재들이 신경성이 낮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즉, 불안, 분노, 우울 등이 낮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학업성취가 우수한 영재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시험불안이 낮게 나타난 것은 그 동안의 여러 연구들(표경식, 1998; 김은수, 1990; Zeidner & Schleyer, 1998)에 의하면 시험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학업성취가 낮고 시험불안이 낮은 사람일수록 학업성취가 높다는 시험불안과 학업성취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결과들과 일치한다.

셋째, 학습습관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을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집단에서 학습습관과 시험불안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나 학습습관이 좋을수록 시험불안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임미순, 2008)을 지지한다. 즉, 공부시간의 이용이나 학습방법의 선정, 노트정리 및 시험 치는 요령이 비효율적일수록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 영재집단에서는 학습습관의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의 모든 면에서 시험불안 간에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일반집단에서는 학습습관의 주의집중행동과 시험불안 간에서만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학습기술적용행동과 자율학습행동은 시험불안과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본 연구는 사이버교육센터의 중학교 수·과학영재와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습관을 사전 사후 검사로 사용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대상 역시 일반 초등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센터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중학생 영재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의 정도를 일반집단과 비교하여 영재집단이 일반집단보다 학습습관이 우수하고 시험불안이 더 낮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영재집단과 일반집단 사이에 학습습관과 시험불안의 상관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일반집단에서의 시험불안과 학습기술적 용행동 및 자율학습행동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선정 시, 영재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면서 KAIST 사이버과학 영재센터에 재원중인 중학생을 표집 함으로써 대상자가 기존에 영재교육을 받았거나 수·과학 학업성취가 우수한 수·과학 영재에 한정되었고, 영재집단 표집 과정에서 영재 남학생과 영재 여학생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다. 일반집단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중학교에서 표집하여 지역 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영재집단의 성비 균형과 지역 간의 편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구병두 (1989).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Meta 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구병두 (1996). **학업성취 관련 변인.** 서울: 양서원.

김기석 (1968). **학습습관 검사해설 및 시행요강.** 서울: 코리안 테스팅 센터.

김문주 (1991).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험불안 진단을 위한 도구개발과정.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32-42.

김억환, 구병두, 변호걸, 김부국 (1992). **학업성취와 관련된 자아개념 변인, 불안 변인, 학습습관 변인, 성취동기 변인, 인성 변인에 대한 종합 분석.** 서울: 건국대 부설 교육 연구소.

김완석 (2000). **학습습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김은숙 (1990). **한국 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시험불안도의 추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경숙, 이혜선 (1976).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 · 태도 · 학습습관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경애 (1997). **인지 · 정서 · 행동치료.** 학지사.

박광관 (1997). **검사의 빈도가 교과영역별 학업성취도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박영희 (1997). **시험불안, 원인귀속 및 학업성취와 자기주의집중과의 상관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박찬원, 박상학, 조용래 (1999). 의과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38(5), 985-996.
배미란, 한기순, 박인호 (2002). 과학영재들의 사고양식과 5인성 요인간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13(1), 43-63.
변창진 (1987). **학습습관의 측정 및 평가: 정의적 특성의 평가방법.** 서울: 중앙교육평가원.
윤영화 (2002). **자기조절 학습상담이 학습전략사용, 학습습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용승 (2000). **범불안장애.** 서울: 학지사.
이종승 (1980). **영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임미순 (2008). **학습기술과 학습습관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향, 박래준 (1998). 시험불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학생생활연구,** 8, 113-131.
조수철 (1991). 시험불안의 개념과 이론.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3-10.
조수철, 정영, 홍강의, 신민섭, 성영훈 (2001). 시험불안과 우울,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25-236.
최진승, 박영희 (1991). 시험불안의 특성과 불안감소 이론 연구. **학생연구,** 19, 5-28.
표경식 (1998).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와 평가위협 스트레스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한상철, 이수연 (2003). 가출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대한 상담학적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52-165.
허정원 (2006).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인성에 따른 학습방법.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Bloom, B. S.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Y: McGrew-Hill Book Company.
Brown, W. F. (1965). Evidence for coding processes in "Rote" paired-associate learning.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Berbal Behavior, 5*(2), 177-181.
Brown, W. F., & Holtzman, W. H. (1955) A study-attitudes questionnaire for predicting academic suc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6*(2), 75-84.
Brown, W. F., & Holtzman, W. H. (1967). *Form C and H in survey of study habits and attitudes.* NY: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Culler, R. E., & Holahan, C. (1980). Test anxiety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effect of study related behavio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 23-38.
Greist J. H., & Jefferson J. W. 저, 김청자 역 (1998). **심리불안과 자기치료**, 서울: 학지사.
Hodapp, V., & Henneberger, A. (1983). Test anxiety, study habit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Advances Test Anxiety Research,* edited by Van der Ploeg, Netherlands. Swtes and Zeitlinger, 119-128.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Hilgard, E. R., & Bower, G. H. (1966). *Theories of learning.* (pp. 661). NY: Appleton-Century- Crofts.

Horney K. 저, 김재은, 김현옥 공역 (1991). **현대인의 이상성격,** 서울 : 배영사.

Liebert, R. M., & Morris, L. W. (1967).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test anxiety: A distinction and some initial data. *Psychological Reports, 20,* 975-978.

Mandler, G., & Sarason, S. B. (1952). A study of anxiety and lear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 166-173.

Munn, N. (1946). *Psychology.* NY: Houghton Mifflin.

Robyak, J. E., & Patton, M. J. (1977). The effectiveness of a study skills course for students of different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200-207.

Sarason, S. B., Davidson, K. S., Lighthall F. F., & Waite, R. R. (1958). A test anxiety scale for children. *Children Development, 29,* 105-113.

Sarason, I. G. (1957). The effect of anxiety and two kinds of failure on serial learning. *Journal of Personality, 25,* 282-392.

Sarason, S. B., Davidson, K. S., Lighthall, F., Waite, R. R., & Ruebush, B. K. (1960).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NY: John Wiley. & Sons.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eilberger (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1.* NY: Academic Press.

Spielberger, C. D., Gonazales H. P., Taylor C. J., Anton W. D., & Algaza B. (1978). Examination stress and test anxiety. In CD Spielberger & IG Sarason (Ed.). *Stress and anxiety,* Vol 5 (pp. 167-191). Washington, DC: Hemisphere.

Spielberger, C. D., Gonazales H. P., Taylor C. J., Anton B., Algaza W. D., Ross, G. R., & Westberry, L. G. (1980). *Preliminary manual for the tes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Tobias, S. (1980). When do instructional methods make a difference. *Educational Researcher, 11,* 4-10.

Tolman, R. M., & Jansen, J. (1984). "I really can't do it, anyway": The treatment of test anxiety, *Advances in test anxiety research,* 3, edited by Van der Pioeg H. M., Schwarzer R., Spieberger. C. D., Lisse/Hillsdale: Swets and Zeirlinger/Erlbaum, 243-254.

Wine, J. D. (1971). Test Anxiety and Direction of Attention. *Psychologic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91-93.

Wrenn, C. G., & Humber, W. J. (1941). Study habits associated with high and low scholarship.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2*(8), 611-616.

Zeidner, M., & Schleyer, E. J. (1998).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for Academic Self-Concept, Test Anxiety, and School Grades in Gifted Childre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4,* 305-329.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

= Abstract =

A Comparison of Study Habits and Test Anxiety Between Gifted and Non-gifted in Middle-School Children:
Math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Gifted at Cyber Education Center and Non-gifted As Subjects

Jeonghwa Moon
JEI University
Sun Hee Kim
JEI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the level of study habits and test anxiety between gifted middle-school students and non-gifted an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study habits and test anxiety in two groups. The total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37 middle school students. One hundred eighty three students (127 boys, 56 girls) belonged to gifted group who were enrolled in Cyber Education Center for Math & Science Gifted Students of KAIST in Daejeon. And two hundred fifty four (128 boys, 126 girls) were non-gifted group who were from the middle school in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vel of study habits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non-gifted. And gifted group felt lower level of test anxiety than non-gifted group. Additionally gifted boy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tudy skills application behavior than gifted girls.

Key Words: Gifted students, Study habits, Test anxiety

1차 원고접수: 2010년 11월 5일
수정원고접수: 2010년 12월 13일
최종게재결정: 2010년 12월 20일

서강대학교 | IP:163.***.1.208 | Accessed 2022/02/14 17:36(KST)